

강심장 이민우, 강타선 또 막아줘



지난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1회말 KIA 선발 투수로 등판한 이민우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오승환, 올 시즌 끝으로 팀 옮긴다?

美 지역 매체 전망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이 끝난 뒤 팀을 옮기게 될 것이라는 지역 매체의 전망이 나왔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식을 전하는 칼럼니스트 릭 험멜은 독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이렇게 내다봤다.

험멜은 "오승환이 올해 이후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마운드)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미국 내 (메이저리그) 다른 팀의 계획안에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적었다.

오승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다. 오승환은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와 '2년 최대 1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첫 시즌에는 옵션을 모두 채웠고, 올 시즌도 옵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2년간 수령액이 1100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지난해에 못 미친다. 지난해 오승환은 76경기에서 79.2이닝을 던져 6승 3패 14홀드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를 올렸다. 중간 계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로 '영전'했다.

그는 올해 마무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중간 계투로 공을 던진다.

지난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59경기째 나와 1승 5패 7홀드 20세이브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했다.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으로 샌디에이고전 이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선수권 감독에

허세환 인하여 감독

허세환 인하여 감독이 제2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야구대표팀을 지휘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허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과 출전 선수 24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대만 뉴 타이베이시에서 열린다.

8개 나라가 참가해 2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개 팀이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다. 예선과 본선을 합산한 종합 성적 1, 2위 팀이 결승전에서 붙어 우승팀을 가린다. 우리나라는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와 A조에 배정됐다. B조에는 일본, 중국, 홍콩, 파키스탄이 편성됐다.

프로야구 KBO 퓨처스(2군)리그에서 뛰는 유망주들이 대표팀의 주축을 이룬다.

상성에 2018년 신인으로 연고 1차 지명된 최재홍(한양대)과 2차 1라운드 포 넥센에 지명된 김선기(상무)를 포함하여 이건욱(SK), 박세진(kt) 등이 대표팀 투수로 뽑혔다. 2017 KBO 퓨처스(2군)리그에서 홈런왕을 차지한 문상철(상무)과 같은 팀의 황대인, 장타력을 인정받은 거포 유망주 김민혁(두산)이 대표팀 타선을 이끈다.

대표팀은 21일 경북 문경에서 모여 김 감독을 만난 뒤 30일 대만으로 떠난다. /연합뉴스

만큼 잘 안돼서 포기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후반기를 준비했는데 기회가 왔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데뷔전을 치른 소감을 언급했다.

올 시즌 뚜렷한 첫 등판, 이민우가 진짜 실력을 점검받는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 시즌 만나기만 하면 화끈한 화력전을 펼쳤던 상대. KIA 투수진의 평균자책점도 SK전에서 가장 높은 6.38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SK가 5위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대의 무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이민우는 "공격적이고 무서운 타자들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공을 던지겠다. 첫 등판에서 볼넷이 없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 하지만 쿠세(투구 습관)가 벌써 노출됐다고 하더라(웃음).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생각이다. 그리고 첫 등판 때 구라하지 않았던 구종도 던질 계획이다. 원래 긴장하지 않는 성격이다. 공격적으로 자신 있게 대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 3년차에 데뷔전 승... 오늘 SK 상대 두번째 선발

"긴장하는 않는 성격... 공격적으로 자신있게 대결할 것"

순천 효천고를 거쳐 경성대를 졸업한 이민우는 지난 2015년 KIA의 우선 지명을 받으며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룬 기대주였다. 시즌 시작할 때 자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경기하다 보니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다. 일찍 1군에서 공을 던지고 싶었는데 불 스피드도 안 나오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실하게 선발 수업을 받은 뒤 롯데전을 통해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민우는 "재활 과정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시즌 시작할 때 자신 있었는데 오랜만에 경기하다 보니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다. 일찍 1군에서 공을 던지고 싶었는데 불 스피드도 안 나오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번트 훈련 서동욱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김선빈 "타격왕, 1경기 남으면 욕심 내겠다"

덕아웃 T 특독

▲팬찮지 않아요? = 10개월 만에 오른 그라운드가 어색하지 않던 일병 박찬호였다. SK와의 홈경기가 열린 19일, 훈련 시간에 낯선 선수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비와 타격 훈련은 물론 김기태 감독을 도와 평소와 같이 치던 이 선수는 휴가를 나온 내야수 박찬호였다. 박찬호는 지난해 겨울 현

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휴가를 나와 인사차 경기장을 찾았던 박찬호는 "훈련을 하고 가라"는 말에 정말 훈련복 차림으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최원준의 스파이크와 글러브 등 여기저기서 연습복과 장비를 빌린 박찬호는 훈련이 끝난 뒤 "10개월 만에 연습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낫다. 팬찮지 않아요?"며 웃었다. 박찬호는 "7kg 정도 몸무게도 불었고, 열심히 웨이트를 하고 있다. KIA 야구도 열

심히 보고 있다. 1위를 하는 팀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도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훈련 잘 받고 몸 잘 만들어 오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찬호는 20일 자대로 복귀한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요 = KIA 타자들이 배트를 짧게 잡았다. 19일 타자들의 훈련 스케줄 중 하나는 번트 훈련이었다. 오랜만에 진행된 번트 훈련, 선수들은 김태룡 코치가 설정한 상황에 맞춰 집중해서 번트를 쳤다. 어린 선수들은 물론 베테랑 서동욱도 번트 훈련에 나섰다. 서동욱은 "큰 경기에서 번트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서 몇 경기에서 번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번트에 실

만 그건 결과론이고 내가 더 잘해야 했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1경기 남으면 불려요 =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타격 1위 김선빈이다. 김선빈은 18일 현재 0.383의 타율로 타격왕을 향한 순항을 하고 있다. 두산 박건우가 0.365로 뒤를 쫓고 있는 상황. 김선빈의 꾸준한 페이스를 보면 역전이 쉽지 않지만 김선빈의 눈은 아직도 먼 곳으로 향해 있다. 전반기가 끝난 뒤 "나중에 10경기 정도 남으면 타격왕 욕심을 내보겠다"고 언급했던 김선빈은 19일에는 "1경기 남으면 생각하겠다"면서 시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1년만에 안방 무대... 포스트 박성현과 대결

22일 KLPGA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개막... 선두 이정은과 격돌

박성현 vs 포스트 박성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 첫해에 남다른 성과를 이룬 박성현이 1년 만에 고국 무대에 선다.

박성현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산길·숲길(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박성현이 K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작년 11월 팬텀 클래식 이후 11개월 만이다.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박성현은 세계 여자골프 '지존'을 넘보는 대스타로 변신했다. US여자오픈과 캐나다여자오픈을 제패했고 LPGA투어 신인왕은 물론 상금왕과 평균타수 1위 등 전관왕을 넘본다.

2015년 이 대회 우승으로 시즌 3승째를 거뒀고 작년에는 코스레코드(64타)를 세우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에비앙챔피언십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를 거쳐 19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내리는



박성현 (왼쪽)과 이정은 (오른쪽)

박성현은 20일 프로암, 21일 골프스킬 대결 등 빽빽한 일정을 보내고 22일부터 경기에 나선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박성현과 박성현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고 있는 '포스트 박성현' 이정은(21)의 맞대결이다.

이정은은 KL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KLPGA투어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성현과 거의 비슷한 행보다.

작년에 7승을 쓸어담은 박성현보다 우승은 3승으로 적지만 톱10 입상률 76%라

는 경이적 기록이 말해주듯 늘 상위권 성적을 낸다. 박성현은 지난해 톱10 입상률 65%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박성현과 박성현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고 있는 '포스트 박성현' 이정은(21)의 맞대결이다. 이정은은 KL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KLPGA투어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성현과 거의 비슷한 행보다.

작년에 7승을 쓸어담은 박성현보다 우승은 3승으로 적지만 톱10 입상률 76%라

이정은은 KL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KLPGA투어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성현과 거의 비슷한 행보다.

작년에 7승을 쓸어담은 박성현보다 우승은 3승으로 적지만 톱10 입상률 76%라

이정은은 KLPGA투어에서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KLPGA투어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박성현과 거의 비슷한 행보다.

우승 130억... 꼴찌해도 3억6천만원

PGA '왕중왕전' 투어 챔피언십 내일 개막

'꼴찌'를 해도 3억원이 넘는 돈을 주는 대회가 있다.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이 바로 그 무대다.

이 대회는 2016~2017시즌 PGA 투어 최종전으로 지난해 10월 개막해 올해 8월까지 이어진 정규 대회와 앞서 열린 세 차례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까지 선수들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2016~2017시즌 PGA 투어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선수 30명만 엄선해 치르는 '왕중왕전'인 셈이다.

'프로는 돈'이라는 말처럼 역시 임이 딱 벌어지게 하는 것은 대회 상금 규모다.

이 대회에서 '꼴찌'인 30위를 해도 상금 14만 달러(약 1억6000만원)에 페덱스컵 최종 순위에 따른 보너스 17만5000달러(2억)가 지급된다. 대략 3억600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우승 상금은 당연히 더 어마어마하다.

우승하면 우승 상금 157만 5000달러(17억8000만원)에 이 우승자가 페덱스컵 최종 순위 1위까지 차지하면 보너스 1000만 달러(112억원)도 받아갈 수 있다. 더하면 130억원가량이다.

올해 페덱스컵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들의 면면 역시 화려하다.

2015년 페덱스컵 챔피언 조던 스피스(미국)가 올해 다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저스틴 토머스, 터스틴 존슨(이상 미국), 마크 리슈너(호주), 온 람(스페인) 등이 2위부터 5위까지 늘어서 있다.

이들 5명은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자격으로 페덱스컵 1위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

한국 또는 한국계 교포 선수들은 투어 챔피언십에 아무도 나오지 못했다.

한국 국적 또는 교포 선수들이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2007년 페덱스컵 창설 이후 2013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연합뉴스